

광주 AI·전남 재생에너지 '허브'로... '5극 3특' 중심축 된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이재명 정부가 확정된 123개 국정과제에서 광주·전남 지역에 대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호남권의 새로운 도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는 '광역별 인공지능(AI) 혁신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구성으로, 전남은 서해안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서남해 해상풍력, 새만금 연계 축으로 산업 생태계를 넓힐 전망이다.

'지방의대 설립'이 국정과제로 반영돼 필수요로 확충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AI 광역 분산 편성은 집적효과 약화와 인재 분산의 우려가 나온다.

◇ 광주, AI 3대 강국 핵심 거점 부상 = 광주시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인공지능(AI) 산업의 전국적 허브로 자리매김할 기회를 얻었다.

정부가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의 핵심 축으로 사실상 광주가 주목되면서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함께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AI고속도로 구축' 국정과제에 따라 광주에는 GPU 확보와 AI 컴퓨팅 인프라가 집중 배치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26년부터 국내 GPU 수요 대비 정부 공급률을 30% 이상 유지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광주가 이러한 인프라의 핵심 거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광주시는 이미 AI 관련 기업들과 연구기관이 집적돼 있어 추가적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AX(AI 전환) 실증밸리' 연계 조거대 AI 컴퓨팅센터 설립과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이 구체화되면 광주는 명실상부한 국내 AI 산업의 메카로 거듭날 전망이다.

다만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전국 각 지역이 AI 허브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가 실질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국내 2026년 AI·AX 예산은 광주 240억원, 대전 1594억원, 경남·전북 각 400억원, 대구 198억원, 부울경 370억원 등으로 배분돼 대형 집적의 장점이 약화될 수 있다.

광주는 2020년부터 AI 집적단지를 조성하며, GPU 데이터센터·실증밸 등 인프라 구축, 기업 진입장벽 하라, 집적화를 통해 대규모 실증사업(2단계 6000억원)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 결과 광주에서는 1000개 융복합기업 집적, 대규모 공공기관·기업 참여, 실증 중심 혁신기관 설립, 국가 AI컴퓨팅센터 유치 등 'AI 실증도시' 전략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AI산업 광역 분산은 집적지의 규모 효과 약화, 인재·기술·기업의 동력 저하, 중복·비효율적 투자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전남, 재생에너지 허브로 대변신 = 전남은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확고히 자리잡게 됐다.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허브 조성 결과 RE100 산단 육성이 본격화되면서 전남이 친환경

광주, 미래모빌리티 국가 시범도시 전남, 친환경 에너지 사업의 '메카' 전남의대 설립 필수요로 확충 기대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부상할 전망이다. '새만금 도약' 국정과제에 따르면 RE100 산단 조성을 통해 수상태양광 1·2단계 등 2.7GW 규모의 발전시설이 에너지고속도로가 가동 시점과 연계해 운영된다. 여기에 신규 3.3GW 확보를 위한 풍력 발전 등도 신속히 추진돼 총 6GW가 넘는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가 조성된다.

이는 전남이 가진 풍부한 해상풍력 잠재력과 일조량 등 자연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전략으로 평가된다. 특히 서해안-남해안-동해안을 잇는 HVDC 에너지고속도로의 출발점이 되면서 전남 생산 전력을 전국으로 공급하는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전남 해남에는 이미 15조원 규모의 AI 슈퍼클러스터 허브 구축 계획이 진행 중이어서 재생에너지와 AI 산업이 결합한 새로운 성장모델도 기대된다.

전남 지방의대 설립도 이번 국정과제와 맞물려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미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전남 국립의대와 부속병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세종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에 국립의대가 설립되면 지역 의료 인프라 확충은 물론 우수 인재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다만 전남도와 순천대·목포대가 요구한 2027년 개교보다 3년 늦춰진 일정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의사인력 수급 계획과 관련 법적 절차 등을 고려할 때 개교 시기 단축 여부가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에 따라 전남 신안 등 해상풍력 단지 구축도 본격화된다. 서남해-제주 해상풍력 단지가 완성되면 전남은 해상풍력 분야에서도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게 된다.

남부산업벨트 육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주목된다. 산업 위기지역 패키지, 미래차·우주 등 국가 산단 조성은 광주·전남 산업 삼각축과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은 여수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중추로 자리 잡았으나,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 중국·중동의 신규 설비, 탈탄소 압박 등으로 최대 위기 상태에 직면했다.

이에 정부는 여수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 철강, 이차전지 분야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하고, 첨단산업과 연계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인 것이다.

◇ 5극3특 체제 핵심축 역할 = 이번 국정과제에서 제시된 '5극3특' 체제는 광주·전남이 포함된 호남권의 위상을 크게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개 초광역권별 특별자치제 설치·운영이 추진되면서 호남권이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잡게 된다.



어린이 손 잡고...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세종시 전통문 조일농원에서 박성호 농장 대표 가족의 손을 잡고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되면서 호남권에도 추가적인 공공기관 유치 기회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2027년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시작되면 광주·전남도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크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교부세율 상향과 국세-지방세 비율 7:3 수준 상향 추진도 지역 재정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호남권이 AI와 재생에너지라는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확보하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계획들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과 체계적인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재정분권 확대와 공공기관 2차 이전, 민관 합동 현장점검과 '국정입법상황실' 가동으로 입법-예산 병목을 줄이는 장치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도.

호남권에선 AI·에너지·관광·돌봄을 한 묶음으로 설계해 교부세·국고보조·특화기금의 '재정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HVDC·철도·항만·의대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인허가와 주민 수용성, 지방재정 부담이 병행돼야 한다. 속도를 높이려면 중앙-광역-기초의 단일 협의 테이블과 로드맵 공개, 규제특례와 표준 패키지의 권역 상호인정을 정례화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제안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호남발전 옥동자 길러야 호남 없이 민주당 없다”

민주 호남발전특위, AI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발전 과제 논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호남발전특위 첫 회의에서 “호남에 대한 민국 민주당의 발전에 기여했지만 국가는 답을 내놓지 못했다”며 “이제 호남 발전이라는 옥동자를 낳고 길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 취임 후 나주 수해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세 차례 호남을 찾은 정 대표는 이번 회의에서 국립의대 설립,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 광역 교통망 확충 등을 과제로 제시하며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호남발전특위는 지난달 발족했으며 위원장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인사 등 60여 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광주 AI 반도체 클러스터, 전북·전남 RE100 국가산업단지, 국립의대 설립 등 사·도별 현안을 논의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5극 3특 균형발전 전략에 맞춰 광역 과제를 제시할 방침이다. 서 위원장은 “위원들이 밑그림을 그리면 대표

가 색을 칠하고 대통령이 액자를 완성해야 한다”고 했고, 황명선 최고위원은 “호남이 역차별 받았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며 성과 창출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어 전북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내년도 정부 편성 전북 예산이 9조4585억원으로 역대 최고 규모라고 소개하며 “전북 도민의 상실감을 잘 알고 있다. 2030 하계올림픽 유치와 새만금 공항 관리에 민주당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속원사업 반영이 여전히 미흡하다”며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고,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뿐 아니라 전북 발전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문대립 대변인은 정 대표가 오는 18일 긴급대책회의를 주관해 호남발전특위와 예결위 지도부가 함께 내년도 예산 반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호남 발전을 위한 반성과 실천의 자리가 될 것”이라며 당 차원의 첫 시도임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